



당근은 정말 싫어!

세상에서 당근이 제일 맛없다고 생각하는 꼬마 토끼 토리예요.



까만 흙 속에 묻어요

할머니가 건네주신 작은 씨앗을 조심스레 땅속에 심어 봅니다.



매일 물을 주며 돌봐요

햇볕을 쬐고 물을 마시며 파릇파릇 연둣빛 싹이 돋아나요.



잡초를 쓱쓱 뽑아요

굵은 땀방울을 흘리며 풀을 뽑아 주니 앞사귀가 더 무성해져요.



영차! 쏙 뽑아 올려요

힘차게 잡아당기자 탐스러운 주황빛 당근이 쏙 솟아올라요.



아삭아삭 정말 달콤해!

직접 정성껏 가꾼 당근은 세상에서 가장 달콤하고 향기로워요.